

[순모임 교재 - The Sent 365]

GOS
10월 둘째주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열왕기상 13:1-10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형식을 갖춘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벳엘에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벳엘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의를 놓지 않습니다.

1. 예언자가 불의한 벳엘 제단을 규탄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1-6절).

- 1)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벳엘 제단을 향해 선포한 예언은 무엇입니까(1, 2절)?
- 2) 벳엘 제단을 향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3, 5절)?
- 3) 여로보암은 예언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4, 6절)?

나눔1 벳엘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유념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눔2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2. 예언자는 왕이 베푸는 환대와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7-10절).

- 1)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7, 8절)?
- 2)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9, 10절)?

나눔3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성공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를 이야기해봅시다. 또 순종하기 위해 성공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공동체: 제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